

“산업·해양 공존하는 여수, COP33 개최 최적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도·여수시,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유치 당위성 역설
“성공적 유치 위해 범정부 차원 강력한 의지·전략적 접근 절실”

2028년 개최 예정인 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축소판인 남해안남중권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개최의 최적지임이 재확인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언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국내 최대 중화학 산업단지와 청정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이 집중 조명되고, COP33 유치가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30분 국회 박물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유치 홍보를 위한 국회포럼이 전남도와 여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신정부 기후변화정책과 COP33 유치’를 주제로 남해안남중권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전 교수는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시설과 잘파·갯벌 등 막대한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을 품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남해안남중권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지역적 특수성은 COP 정신에 가장 부합하며, 전 세계에 기후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교수는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렸던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경험을 통해 해양·연안 생태계 중심의 COP33 개최라는 차별화된 비전 제시의 필요성도 제언한다. 특히 영호남(전남+경남)이 함께하는 ‘동서화합’의 의미까지 더해져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OP33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진다.

오성남 연세대 특임교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영향과 탄소중립”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의 과학

적 심각성을 환기하고, 탄소포집활용(CCUS), 직접공기포집(DAC), 수소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포럼의 논의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교수도 COP 유치가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유치 의지(필요조건)와 전 세계 대사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교적 지원(충분조건)이 결합해야 가능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COP33 유치위원회’ 구성 및 적극 운영 ▲개최 도시를 ‘여수’로 명확히 하고 주변 지역이 지원하는 ‘1개 도시 집중 개최’ 원칙 준수 ▲국회 차원의 ‘COP유치포럼’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이 COP33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된다.

이상훈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은 2009년 시민사회의 제안에서 시작된 유치 노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COP33 여수 유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잇는 필연적 과제라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며,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은 COP33 유치는 남해안남중권 지방정부들이 책임감 있는 기후 행동 주체로 성장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천혜의 자연과 산업 기반이라는 독특한 자산을 ‘COP33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며 “지역의 노력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한국어 교육·지역특화비자 전환 지원...법률·노동 분야 상담 등

전남 동부권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는 여수상공회의소에 둥지를 틀었다. 전담인력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다.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는 동부권에 거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TOPIK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행정, 의료 등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돕는다.

또 법률, 노동 분야를 비롯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과 현장 방문 상담 등도 병행할 방침

이다.

동부권 외국인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문화 체험 및 한국 문화 교육 등을 개최한다. 또 각 국가별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들과 소통, 화합의 기회를 제공, 외국인들의 소통 장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8일 개최하는 개소식에는 동부권 외국인 주민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 부시장, 전남대총장, 도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며, 행사는 축하와 환영식, 개소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더위 꺾인다...전남도립도서관 가자

특별전·강연·공연·체험 등 마련...연말까지 지혜의 숲 강좌

책 읽기 좋은 9월을 맞아 전남도립도서관이다 양한 문화행사를 마련, 도서관으로 발길을 이끌기 위해 공을 들이고 나섰다.

2일 전남도립도서관에 따르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민의 독서문화향유를 위한 특별 전시와 강연, 공연, 체험 등 복합문화행사를 마련, 선보인다.

독서문화행사로는 ‘제253회 지혜의 숲 도민강좌’를 연말까지 진행기로 했다. 김동우 사진작가가 올 하반기 첫 강사로 나서 오는 4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작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사진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별 전시로는 목포민화연구회 작가와 회원들의 초청 전시 ‘도서관, 민화 속에 스며드는 책과 만나다’〈사진〉가 오는 30일까지 펼쳐진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철학으로 시대를 해석하다’라는 주제의 강연도 오는 29일 열린다.

박 교수는 새로운 K-민주주의를 토대로 탄생한 대한민국 이야기를 철학으로 들려줄 예정

이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꾸러기네 도서관 클럽’, ‘꼬물꼬물 책놀이터’, ‘픽셀 위의 꿈, 우리는 디지털드로잉 루키즈!’, ‘어른이 된 나를 위한 그림일기’, ‘나와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을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 시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는 ‘연체자 특별 해제행사’도 진행한다.

조병섭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 뿐 아니라 지속적인 독서문화행사를 마련,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만원주택’,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남개발공사가 선보인 ‘만원주택’ 공급사업이 ‘2025년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

경진대회는 1차 적격심사→2차 전문가 서면심사→3차 온라인 투표(공무원·도민 참여)→4차 발표심사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시(市) 지역 만원주택 공급’ 주거복지 적극행정 사례 발표를 통해 도민 제과도와 정책 창의성, 전국 확산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선보인 만원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빈 집(공공임대)을 전세 방식으로 확보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년간 재임대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 ‘전남형 만원주택’이 군단위 중심으로 진행중이지만, 전남 청년 인구의 약 72%가 시 지역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 공급 대상을 시 지역까지 확장하고 기관 협력형 주거복지 모델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입주 자격기준을 두고 LH와 이견이 있었으나, 적극 협의해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게 개발공사 설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6년간 거주할 경우 최대 약 410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인구 유입과 결혼·출산 장려, 내 집 마련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성과가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